

우리가 함께라면...

IMAGE LINK Kawauchi Rinko Narahashi Asako
Hara Mikiko Ishiuchi Miyako Ninagawa Mika
Noguchi Rika

포토그래피포럼프랑크푸르트, 일본 사진가 그룹전

2025 / 08 / 18

조재연

당신이 함께 있어 정말 행복해요. <I'm So Happy You Are Here>(5. 24~9. 7 포토그래피포럼프랑크푸르트)는 여성 사진가의 눈으로 일상의 사소한 사물과 개인의 소소한 기억을 필름 위에 되살려 낸다. 195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일본 사진사에서 비주류에 머물렀던 여성 포토그래퍼 26인의 작업을 통해 '보이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'라는 질문을 던졌다. 이시우치 미야코, 가와우치 린코, 카타야마 마리 등 당대의 포토그래피션을 대표하는 사진가가 한자리에 모였다. 이들은 창백한 빛, 텅 빈 방, 망가진 사물과 같은 오브제에서 노인, 혼혈인, 성 노동자, 트랜스젠더 등의 소수자까지..., 사회가 외면해 온 아브젝트(abstract)의 형상을 응시한다. 주변으로, 절벽으로 내몰린 존재의 초상은 시간이 멈춘 폐허처럼 공허하다. 그러나 사진은 그 틈을 현대의 시선으로 채운다. 전시에서 이들은 향기로, 온기로, 생기로 가득하다. 세상에 하찮고 쓸모없는 것은 없다. 차이가 만들어내는 화음이 있기에 세상은 아름답다. 우리는 함께 있을 때 비로소 행복하다.



가와우치 린코 <무제> 2024

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혼자가 아니다. 투명한 빛살 포근히 너를 물들이고, 살랑이는 바람이 머리를 빗겨주는 사이. 저 멀리 벗의 마음도 빛, 바람 타고 어깨를 내준다.



나라하시 아사코 <Half Awake and Half Asleep in the Water> 2003

하늘을 달리던 빗물도, 대지를 기던 흙탕물도, 시궁창을 굴렀던
고인 물도... 우리는 바다 되어 서로를 껴안으리. 이끌거리는
백일에 윤슬 반짝이고, 거센 풍랑에 파도 꽃 피워내리니.



노구치 리카 <Cucumber, 21 August> 2017

햇살 한 줌 기댈 수 있다면 나 세상을 저 끝까지 오르겠다. 서로를
꼭 쥐 손 있다면, 어디라도 함께 솟으리니. 어둠 속 모든 시간이어!
너를 넘으리라.



미키코 하라 <무제> 1996

어둠한 내리막길. 혼자라면 휘청였을 순간. 기댈 품 있어 다시



이시우치 미야코 <Mother's #39> 2002

검은 루즈는 불온한 아름다움의 깃발. 어둠을 살아온 이들의 소리 없는 아우성. 낡은 기억, 잊힌 얼굴. 그 굳은 뺨에 타는 입술을 맞추리. 함께라면 지우지 않으리.



니나가와 미카 <무제> 1998

웅숭그린 옛 수영장. 들풀 홀로 뿌리내리는 곳. 들꽃 혼자 향기 머금은 곳. 메마른 자리에서 피어난 희망은 더 단단하다. 마음의 물안개 온몸으로 맞으며 다시, 달리자!